



Since I came to be aware of it in the early 2000s, Roma Publications has barely changed the design of its website: a single page with a list of publications. Certainly, the list itself has steadily grown, and at some point it must have become necessary to split the page into two, as it probably began to take too much time to load the entire content on a single page. Also, an introductory page was added with some information about the publisher and upcoming titles, as well as a link to its online store. I believe it's a later addition, but it's also possible that the intro page was always there, and my memory has been distorted in order to serve my preference for a more brutal presentation of facts without proper greetings or warnings.

In the main, however, the website is still a simple construction with the tabular index organized like a spreadsheet. The table has seven columns, each describing an aspect of a book: issue number; title; related artists; number of pages; size; related institutions (often co-publishers); and the year of publication. Each row represents a publication, and at the time of writing, there are 272 rows. If you select a title and click on it, the row expands and more detailed description is given, along with some images of the book.

The table is usually read horizontally: you connect information contained in a certain row, from the issue number to the publication date, to get a sense of the book. In this instance, however, I will attempt to read it vertically.

세로 읽기

최성민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웹사이트는 내가 그 존재를 알게 된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디자인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사이트라고 해봐야 출간 도서 목록 한 페이지밖에 없었다. 물론 목록 자체는 꾸준히 늘어났으니, 어느 시점부터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로딩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것이므로 페이지를 둘로 나눌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 정보와 근간 소식, 온라인 상점 링크 등을 적은 인트로 페이지도 추가됐다. 물론 그 페이지가 나중에 추가됐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실은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인사나 경고 없이 무자비하게 사실을 제시하는 방식을 좋아하다 보니, 기억이 몇대로 왜곡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 전반은 여전히 단순하다. 스프레드시트처럼 구성된 출간 도서 목록이 거의 전부다. 표는 일곱 열로 나뉘고, 각 열은 간행 번호, 제목, 작가, 쪽수, 크기, 협력 기관(대부분 공동 발행처), 출간 연도 등 서지 사항을 하나씩 나타낸다. 한 행은 도서 한 편을 표시하는데, 이 글을 쓰는 현재는 272행이 있다. 제목을 선택해 누르면 해당 행이 넓어지고, 사진과 함께 상세 정보가 표시된다.

이런 표는 대부분 가로 방향으로 읽는다. 즉, 독자는 간행 번호부터 연도까지 한 행에 표시되는 정보를 좌우로 연결해 가며 관련 도서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같은 표를 세로 방향으로 읽어 볼 생각이다. 간행 번호부터 연도까지 모든 열을 분리하고, 행과 행을 가로질러 한 열을 살펴본 다음 열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왜 그러느냐고? 단지 그럴 수 있다는 점만도 이유는 된다. 원래 스프레드시트란 그렇게 읽으라고 있는 문서니까. 하지만 이처럼

I will isolate and examine one column before moving on the next, from issue numbers to publications dates, traversing different rows of books. Part of the reason why I want to do this is simply because I can: it's how you're supposed to use a spreadsheet, isn't it? But I'm also curious if something about Roma's body of work could be disclosed by the unusual way of reading. Something interesting might come up if I look at, say, the issue numbers only, without necessarily referring to the books' actual contents. Let's say it's an adaptation of Franco Moretti's method of literary study — a distant reading without enough distance.

[ISSUE NUMBER]

As mentioned previously, the index table currently has 272 rows, but the highest issue number is 271. Why the discrepancy? First, Roma #11 to #14, Hann. Münden Promotion Posters by Mark Manders and Roger Willems, are listed together in a single row, as the four posters make up a set. Secondly, Newspaper with Fives (#25), again by Manders and Willems, has a sibling publication: #25b, Newspaper with Fives (82%), which is a reduced version of #25. Similarly, Manders's Hallway with Sentences (#63) was reprinted (with a different cover stock) and published as #63b. And Eva (II) by Petra Stavast (#114b) is a poster that shows a picture originally published in her book of portraits, China/S75 (#114). Books #145a, #145b, and #145c are different

178

독특한 방법으로 읽으면 로마 퍼블리케이션스에 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예컨대 책의 실제 내용은 참고하지 않고 모든 출간 도서의 간행 번호만 모아 놓고 보면, 뭔가 흥미로운 점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다. 프랑코 모레티의 문학 연구 방법을 응용한 기법이므로, '멀지 않은 데서 멀리 읽기'라고 해 두자.

[간행 번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의 출간 도서 목록은 272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간행 번호는 #271이다. 이 편차는 왜 발생했을까? 첫째, #11부터 #14, 즉 마르크 만더르스·로허르 빌럼스의 하노버슈 뮌덴 홍보 포스터는 네 장이 한 세트를 구성하고, 따라서 한 열만 차지한다. 다음으로, 역시 만더르스·빌럼스가 만든 숫자 5를 담은 신문(#25)에는 짝이 있다. #25를 축소해 #25b로 펴낸 숫자 5를 담은 신문(82%)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만더르스의 문장이 있는 복도(#63)는 다른 표지 재질로 증쇄돼 #63b로 출간됐다. 그리고 페트라 스타바스트의 에바(II)(#114b)는 같은 작가의 사진책 차이나/S75(#114)에 실린 사진 한 장을 따로 보여 주는 포스터다. #145a #145b #145c는 마레이어 랑엘라르가 엮은 오픈 데이스의 네덜란드어판, 이탈리아어판, 프랑스어판에 해당한다. #173 SP는 안 켐페나르스의 픽처레스크(#173) 특별판으로, 작가가 에디션 번호를 붙이고 서명한 원본 사진이 포함돼 있다. 이상하게도 #148과 #238은 목록에 없다. 리데커 크릭의 초상화(#147) 다음에는 올라프 니콜라이·장뤼크 낭시의 (내면의 목소리)(#149)가, 카를 마르텐스의 리프린트(#237) 다음에는

language editions — Dutch, Italian, and French — of Open Days, edited by Marije Langelaar. And #173 SP is a special edition of Picturesque (#173) by Jan Kempnaers; it comes with original prints signed and numbered by the artist. Publications #148 and #238 are curiously missing from the list. Thus, (Innere Stimme) by Olaf Nicolai and Jean-Luc Nancy (#149) directly follows Liedeke Kruk, Portraits (#147), and nothing comes between Karel Martens, Reprint (#237) and Geert Goiris, Prophet (#239). There are no explanations of these omissions. Were these projects planned, yet ultimately proved futile? Perhaps the titles were published, but for some reason removed later from the list. Maybe the slots were reserved, but the actual publications had to be given different numbers. Or, least likely, are they simple mistakes?

Thus, it takes some perseverance to determine exactly how many publications have been made since Roma was founded in 1998. For the sake of simplicity, let's just say that 271 titles have appeared so far, as indicated by the number of issuance. This number, over eighteen years, equates to approximately fifteen publications per year, 1.25 per month. I'm not in a position to evaluate its productivity, but I'm still curious to know what it means for such a small company — just a couple of individuals, who all have other work to do, too — to produce one and a quarter books every month. Let's put this in perspective: how do they do at larger companies? How many books do they make at, say, Phaidon? My far-from-scientific research based on the information published on their online store tells me that the London-based major art book publisher (with "offices in New York, Paris, Berlin,

헤이르트 호이리스의 선지자(#239)가 슬쩍 이어진다. 누락에 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다. 계획은 세웠지만 출간은 되지 않은 작업일까? 출간은 됐지만 나중에 목록에서 빼야 하는 사정이 있었을까? 번호를 잡아 놓고 진행했지만, 막상 출간할 때는 다른 번호를 달아야 했을까? 아니면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단순한 실수일까?

그러니까, 1998년 설립 이후 로마 퍼블리케이션스에서 도서가 정확히 몇 편 출간됐는지 단정하려면 얼마간 용기가 필요한 셈이다. 일을 단순화하는 뜻에서, 일단은 간행 번호가 가리키는 것처럼 271편이 출간됐다고 치자. 18년간 271편을 낸다 — 이는 대략 한 해에 15편, 한 달에 1.25편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출판 생산성을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로마처럼 작은 출판사가 (다른 일도 겸하는 두어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매달 1과 4분의 1편씩 책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궁금하다.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대형 출판사는 어떨까? 예컨대 파이돈에서는 책을 얼마나 많이 펴낼까? 온라인 서점에 올라온 정보를 바탕으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조사를 해본 결과, 런던에 본사를 둔 ("뉴욕,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밀라노, 도쿄에 지사를 둔") 대형 미술 출판사 파이돈은 1998년 이후 책을 1,182권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한 해에 66권, 한 달에 5.5권을 펴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증쇄나 신판이다. 파이돈은 대형 출판사이지만, 어쩌면 스스로 펴내는 책처럼 대형은 아닌 모양이다. 아무튼, 미술 출판계의 진정한 거인 템스 허드슨에 비교하면 파이돈의 생산력은 왜소한 수준이다. 나는 1천 편쯤까지 세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만, 템스 허드슨에서는 "매년 신간을 180편가량 펴내고, 유통 중인 책은 2천 편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위키백과에 실린 템스 허드슨 설명을 보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200명가량 된다고 한다. (한편, 템스 허드슨 웹사이트에는 해당 위키백과 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걸려 있다. 내용을 승인한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Madrid, Milan, and Tokyo”) has put out 1,182 titles since 1998. That’s about sixty-six books per year, 5.5 per month, and the number includes reprints and revisions, which seem to comprise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ir catalogue. Phaidon is a large publisher, but perhaps not as large as you might imagine based on the typical size of their books. In any case, their output pales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trade’s true giant, Thames & Hudson. I stopped counting its books at around a thousand, but Thames & Hudson boasts of publishing “approximately 180 new titles each year and has a current backlist of over two thousand titles.” Then again, there are about two hundred employees working for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Wikipedia entry on the publisher (which, by the way, is sanctioned by a hyperlink included on Thames & Hudson’s website.) Divide the total output by the number of people employed, and compare the result with Roma’s: you can see a human scale of art book publishing.

TITLE

Among the 243 Roma titles to which “language” classification may be applicable (excluding proper names and non-words), English accounts for an absolute majority: 199 books are written in that language. It’s followed by Dutch (twenty-three titles), German (eight), French (eight), Portuguese (five), Spanish (three), Italian (three), and one in a Balkan language (Spomenik, #141).

180

그러니까 템스 허드슨의 연간 산출물을 직원 수로 나누고, 그 값을 로마의 값과 비교해 보면... 미술 출판의 휴먼 스케일을 그렇게 엿볼 수 있다.

제목

로마 도서 중에서 (고유명사나 무의미한 글자 등을 제외하고) 제목의 언어를 분류할 수 있는 243편을 놓고 보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언어는 199편에 쓰인 영어다. 그 뒤로 네덜란드어(23편), 독일어와 프랑스어(각 8편), 포르투갈어(5편),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각 3편)가 이어진다. 발칸 반도 언어가 쓰인 제목도 하나 있다(#141, 스포메니크).

로마 도서 제목에서 가장 자주 쓰인 단어는 ‘드로잉스’(drawings)로, 11편에 등장한다. 마르크 만더르스의 저작 5편(#17 #29 #36 #39 #187), 바르트 로데베이크스의 저작 4편(#91 #140 #262 #271)에 쓰인 단어다. 그 밖에 많이 쓰인 단어로는 ‘무제’(untitled, 10편), ‘노트’(notes, 8편), ‘재현’(representation, 7편) 등이 있다. 일곱 권으로 나온 이레인 코펠만의 ‘재현에 대한 노트’ 시리즈 덕분이다. (#95 #159 #161 #154 #196 #218 #259. 무슨 사정인지, 4권보다 3권의 간행 번호가 더 높다.) ‘회화’(painting)와 ‘조각’(sculpté)은 베르나르 브뤼농의 이것이 회화 작품이다(#107)와 쿤라트 데도벨레이르의 조각품, 아마추어를 위한 작업(#185)에 각각 한 번씩 쓰였다.

제목이 가장 짧은 도서는 헤이르트 호이리스의 3(#77)이다. 사진 시퀀스를 보여 주는 카드 세 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가장 긴 제목의 책은 칼 안드레 로버트 배리 더글러스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 in Roma titles — filtering out articles, propositions, and conjunctions — is “drawings,” which appears eleven times. Five of the titles are by Mark Manders (#17, #29, #36, #39, and #187), and four are by Bart Lodewijks (#91, #140, #262, and #271). Other often-used words include “untitled” (ten times), “notes” (eight), and “representation” (seven). Of course, there are the “Notes on Representation” books by Irene Kopelman, which have been published as seven volumes (#95, #159, #161, #154, #196, #218, and #259). For some reason, the fourth volume is given an issue number preceding that of volume three. “Painting” and “sculpté” appear once each, respectively in Bernard Brunon, That’s Painting (#107) and Koenraad Dedobbeleer, Oeuvre sculpté, travaux pour amateurs (#185).

The shortest title is 3 by Geert Goiris (#77), which consists of three cards showing a sequence of photographs. The longest one is CARL ANDRE ROBERT BARRY DOUGLAS HUEBLER JOSEPH KOSUTH SOL LEWITT ROBERT MORRIS LAWRENCE WEINER (#260), also known as the “Xerox Book,” which is a reprint of the original 1968 publication by Seth Siegel and John Wendler.

A few titles are also notable for their idiosyncratic use of punctuations (especially parentheses). Apart from some (Untitled) works (#49, #56, #67, #115, and #120 by Geert Goiris; #60 by Batia Suter; #112 by Stephan Keppel), titles like (SOME) and (Innere Stimme) can be a headache to editors and typesetters. (Should I write (SOME) or [SOME] in this case, for example?) What about Dexter Sinister’s On a Universal Serial Bus.* (#254)? What

휴블러 조지프 코수스 솔 르윗 로버트 모리스 로런스 위너 [일명 ‘제록스 북’](#260)으로, 세스 시글로브·존 웬들러가 1968년에 펴낸 책을 리프린트한 작품이다.

독특한 문장부호(특히 괄호)가 돋보이는 제목도 있다. (무제) 몇 점(헤이르트 호이리스 #49 #56 #67 #115 #120, 바티아 슈터르 #60, 스테판 케펠 #112)도 그렇지만, (몇몇)이나 (내면의 목소리) 같은 제목은 교열자나 조판가에게 골칫거리가 될 법하다. 덱스터 시니스터의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에 관하여.*(#254)는 또 어떤가? 그 제목으로 문장을 끝맺고 주석 표시로 별표도 달아야 한다면? 그리고 폴 엘리먼의 무제 (9월호)(2013년 9월)에 이처럼 출간 연월을 표기하면서도 여전히 진지하게 대접받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작가(들)

미술책의 ‘작가’라면, 책이 다루는 대상 작가라는 뜻일까, 아니면 책을 쓴 작가라는 뜻일까?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도서관 사서가 아닌 이상 그들을 또렷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이다. 중요한 점은 책의 내용에 이바지한 사람을 독자에게 밝히는 것이지,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를 세세히 따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로마 웹사이트의 도서 목록에 깔린 생각은 그런 듯하다. 그래서 ‘작가’라고 제목이 붙은 열에는 대상 작가와 저자, 편집자 등이 모두 거명돼 있다. 하나씩 세 보니 총 134명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 가장 왕성한 작가는 마르크 만더르스로서, 그가 전부 또는 일부 지은 도서는 무려 50편에 이른다. 로허르 빌럼스는 편집자이자 협업자로서 18편을 냈지만, 단독 저서는 없다. 반대로, 마르크 나흐참이 낸 도서는

happens when I need to end a sentence with the title and add an asterisk as a pointer to a note? And how can I cite the date of publication for Paul Elliman's Untitled (September Magazine) (September 2013) and still look serious?

ARTIST(S)

When you say you're the artist of an art book, do you mean that you're its subject or its author? It can be confusing, but it's not always necessary to make a clear distinction, unless you are a librarian. The important thing is to acknowledge whoever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ontent and let them be known to the readers, not being overtly analytic about the nature of their contribution. At least, that seems to be a guiding spirit behind the Roma website's index table. Thus, there are names of the subjects, authors, producers, and editors, all occupying the same column under the "artist(s)" heading.

According to my counting, 134 different individuals are listed. The most prolific artist seems to have been Mark Manders, who is wholly or partially responsible for no less than fifty titles. Roger Willems has contributed to eighteen works as editor or collaborator, but never as a sole artist. In contrast, Marc Nagtzaam made twelve publications, but only once did he work with someone else, on Work and Non-work (#19), which consists of

1 182

12편인데, 그중 다른 사람과 협업한 작품은 하나뿐이다. 나흐참의 드로잉과 빌럼스의 사진을 엮은 워크 앤드 논워크(#19)가 그 책이다.

만더르스와 빌럼스, 나흐참은 로마 퍼블리케이션스의 주요 작가일 뿐 아니라 창립자이기도 하다. 그들 외에 자주 언급되는 작가로는 17편에 참여한 마레이어 랑엘라르가 있다. 그중 7편은 만더르스와 협업한 작품이고, 나머지는 그 자신이 저술하거나 편집한 책이다. 이레인 코펠만은 앞서 언급한 '재현에 대한 노트' 시리즈를 포함해 9편을 냈다. 헤이르트 호이리스도 9편을 냈는데, 그중 6편은 제본한 책이 아니라 카드나 포스터, 레포렐로 같은 인쇄물이다. 바르트 로데베이크스가 낸 7편은 모두 자신의 도시 공간 드로잉과 관계있다.

얀 캠페나르스와 롤란트 스키멀은 각각 5편을 냈다.

로마에서 책을 2편 이상 낸 작가와 저술가,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다: 알렉산드라 나브라틸, 아르나우트 홀레만, 바티아 슈터르, 크리스토프 이보레, 다나 릭센베르흐, 디터르 룰스트라터, 에리크 벨트란, 에릭 판 데르 베이더, 익스페리멘탈 제트셋, 가브리엘 쿠리, 이냐키 보니아스, JCJ 판데르헤이던, 카를 마르텐스, 카팅카 보크, 케이스 하우츠바르트, 쿤라트 데도벨레이르, 튀크 빌메링, 니컬 판 다위벤보던, 옥사나 파사이코, 올라프 니콜라이, 폴 엘리먼, 페트라 스타바스트, 필리퍼 판 카우테런, 레몽 토맹 샤보, 로프 요하네스마, 룰 아르케스테인, 사스키아 안선, 제바스티안 하켄슈미트, 주자네 크리만, 타무나 차바슈빌리, 우타 아이젠라이히, 베스나 마조스키, 바우터르 판 리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첫 책을 로마에서 냈을지도 모른다. 일부는 어쩌면 로마에서만 책을 냈을지도 모른다.

로마 작가 중에는 가공인물이 한 명 있다고 들었다. 로마에서 책을 내기도 한 실존 작가가 자신의 기존 작업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디어를 실현해 줄 출구로 쓰려고 가공해 낸 인물이라고

Nagtzaam's drawings and Willems's photographs.

Now, we know that Manders, Willems, and Nagtzaam are not only the main artists, but also the very founders of Roma Publications. Other than them, Marije Langelaar is credited as responsible for seventeen publications; seven of these are collaborations with Manders, and the rest are her own authored or edited works. Irene Kopelman made nine books,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Notes on Representation" series. Geert Goiris also produced nine publications, and six of them are loose prints (cards, leporellos, folded posters) rather than bound books. Bart Lodewijks published seven books, and all of them are related to his urban drawings. Jan Kempenaers and Roland Schimmel have each published five books.

The following artists, writers, and designers have all published more than one book through Roma: Alexandra Navratil, Arnoud Holleman, Batia Suter, Cristof Yvoré, Dana Lixenberg, Dieter Roelstraete, Erick Beltrán, Erik van der Weijde, Experimental Jetset, Gabriel Kuri, Iñaki Bonillas, JCJ Vanderheyden, Karel Martens, Katinka Bock, Kees Goudzwaard, Koenraad Dedobbeleer, Luuk Wilmering, Nickel van Duijvenboden, Oksana Pasaiko, Olaf Nicolai, Paul Elliman, Petra Stavast, Philippe Van Cauteren, Raymond Taudin Chabot, Rob Johannesma, Roel Arkesteijn, Saskia Janssen, Sebastian Hackenschmidt, Susanne Kriemann, Tamuna Chabashvili, Uta Eisenreich, Vesna Madzosi, and Wouter van Riessen. Some of the books might be their first publications; some of them might even be their only one.

I heard that there is a fictitious personality among the listed names,

183

한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공했다는 것인지,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쪽수

로마 출간 도서 중에서 가장 얇은 '책'은 전체 4쪽에 불과한 마레이어 랑엘라르의 독서(#7)다. 사실은 짧은 글 한 편이 실린 종이 한 장을 접은 것으로, 같은 작가의 64쪽짜리 책 상호 작용의 행복(#10)을 위한 '서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가장 긴 '책'은 마르크 만더르스·로허르 빌럼스의 32544개 연상 단어집(#6)으로, 분량은 — 짐작하다시피 — 32,544쪽에 이른다. 무려 108권에 걸쳐 "모든 독일어 단어를 한 쪽에 다섯 개씩 연관 단어로 묶어 제시"하는 작품으로, 단 두 부만 출간됐다. 그보다는 덜 극단적인 예로, 이냐키 보니아스·로허르 빌럼스의 896쪽짜리 묵직한 책 화이트 북(#37)과 856쪽에 이르는 (그러나 생각보다 편안한) 안터 티메르만스의 드로잉스 (001-806)(#246)이 있다. 전자는 2002년에 50권 한정판으로 출간됐지만, 티메르만스의 드로잉 806점을 담은 책은 56.6유로라는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로마 도서의 평균 분량은 — 32544개 연상 단어집처럼 극단적인 작품이나 형식이 독특한 도서를 제외하면 — 117페이지다. 형식이 독특한 도서를 제외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32개 '도서'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카드: 헤이르트 호이리스(#49 #77), 옥사나 파사이코(#96). 포스터: 낸시 스페로(#110), JCJ 판데르헤이던(#80), 아르나우트 홀레만(#203), 헤이르트 호이리스(#56), 페트라 스타바스트(#114b), 롤란트 스히멜(#71 #92), 마르크 만더르스(#4와 #11-#14는 로허르 빌럼스와 합작, #30는 단독 저작), 기타 여러

created by an actual artist who has published through Roma, but who wanted to have an additional outlet for some ideas that might not fit his/her existing body of work. But I can't recall who told me that, or who invented whom.

PAGES

The shortest "book" published by Roma is Marije Langelaar's Het lezen (#7), which has mere four pages. In fact, it's a folded paper with a short text, and was made as a "preface" to the same artist's sixty-four-page book, Interactief gelukkig (#10). The longest "book," then, is 32544 Assoziative Wortkörper (#6) by Mark Manders and Roger Willems, and the extent is — you guessed it — 32,544 pages. The staggering 108-volume work contains "all existing German words grouped in associative units of five words per page," and the print run was just two copies. Less extreme examples are the 896-page tome White Book (#37) by Iñaki Bonillas and Roger Willems, and Drawings (001-806) by Ante Timmermans (#246), which extends to 856 pages (yet is surprisingly handy). The former was published in 2002, in an edition of fifty, but Timmermans's book of 806 drawings is still available for a modest price of 56.60 euros.

The average extent of Roma books — excluding the extreme 32544 Assoziative Wortkörper and other odd formats — is 117 pages. But excluding odd formats means that quite a few were not accounted in my calculation

184

작가(#20 #101). 음악 CD: 아르나우트 홀레만(#172 내 아버지의 피아노 연주), 바우터르 판 리션(#69 나무로 만든). DVD: 만더르스(#41), 스텔(#65, 데이비드 로페이토와 합작), 튀크 들뢰(#194). 영화: 바티아 쉬터르(#74 평행 슬라이드쇼). '접은 종이': 올라프 니콜라이(#168), 마르크 나흐참(#27 #93). '작은 종이쪽': 마르티어 튀니션(#18). '판지에 인쇄': 만더르스(#174). 토트백: 익스페리멘털 제트셋(#248 Arts/Rats/Star), 카를 마르텐스(#245 ROMA). 웹사이트: 필리퍼 판 카우테런(#54 O, R, G, U & H). "쿤스트페어라인 알렌 전시 프로그램 연계 도서 시리즈" (#85). 마르크 만더르스·마레이어 랑엘라르가 "도쿄 어딘가에서 빨래를 기다리며 한 시간 동안 찍은 사진" 연작(#23). 물론, 짧고 슬픈 텍스트(14개국의 국경에 기반하여)라는 제목으로 나온 옥사나 파사이코의 '비누에 머리카락'(#73)도 있다. 두 점 제작돼 한 점은 오슬로의 공중화장실에 비치했던 작품이다.

크기(cm)

책의 '크기'는 간단한 개념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책이 17×24cm라고 할 때, 그 크기는 본문 페이지의 크기일까 아니면 표지의 크기일까? 아니 그전에, 어떻게 책의 크기가 '17×24cm'가 될 수 있나? 두께 없는 이차원 평면도 아닌데? 하긴, 두께를 잴 얼마나 정확히 잴 수 있을까? 같은 책이라도 본마다 두께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고, 같은 본이라도 (종이는 습기를 흡수하므로) 계절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근삿값의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작은 로마 책과 가장 큰 책은 무엇일까?

of the average length: thirty-two "publications," to be exact. These include: cards by Geert Goiris (#49 and #77) and Oksana Pasaiko (#96); posters by Nancy Spero (#110), JCJ Vanderheyden (#80), Arnoud Holleman (#203), Goiris (#56), Petra Stavast (#114b), Roland Schimmel (#71 and #92), Mark Manders (#4 and #11-14 with Roger Willems, and #30), and other various artists (#20 and #101); audio CDs by Holleman (My dad playing piano, #172) and Wouter van Riessen (Made out of Wood, #69); DVDs by Manders (#41), Schimmel (#65, with David Lopato), and Luc Deleu (#194); a movie by Batia Suter (Parallel Slideshow, #74); "folded paper" by Olaf Nicolai (#168) and Marc Nagtzaam (#27 and #93); a "small piece of paper" by Maartje Teunissen (#18); "print on cardboard" by Manders (#174); tote bags by Experimental Jetset (Arts/Rats/Star, #248) and Karel Martens (ROMA, #245); a website edited by Philippe Van Cauteren (O, R, G, U & H, #54); a "growing series of publications related to exhibitions in Kunstverein Ahlen" (#85); a series of photos "made within one hour while waiting for the laundry, somewhere in Tokyo" by Manders and Langelaar (#23); and indeed, a "hair on soap" entitled Short Sad Text (based on the borders of fourteen countries) by Oksana Pasaiko (#73), which was made in an edition of two, one copy of which was left in a public toilet in Oslo.

SIZE (in cm.)

(비누를 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은 하지 말자. 비누도 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페이지도 없고 표지도 없는 그 물건이 지금 내게 필요한 크기 값을 내줄 성실지는 않다.) 가장 작은 책은 디터 룰스트라터의 이바어 폰 튀켄: 시 선집(#192)으로, 크기는 10.7×17.7 cm이다. 근소한 차이로 밀려난 책으로는 익스페리멘탈 제트셋의 자동으로 정렬되는 알파벳(#249)과 진술과 반박(#250), 우타 아이젠라이히·제임스 랭던의 플레이(#267)가 있다. 모두 11×18 cm이다. 그 뒤를 바싹 쫓는 12×17 cm짜리 책이 세 권 있다. 튀크 빌메링의 그 무엇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144)과 여러 작가의 베니스비엔날레 네덜란드관(#163), 마르크 만더르스의 애컬리트 프레나(#229)다. 웹사이트에 실린 설명에서 마지막 간행물은 '작은 책'으로 묘사됐는데, 그에 시비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마우트 판더 페이러의 소설 파편들은 나무의 조각이다(#43)는? 크기가 12×20 cm니까, 애컬리트 프레나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미술책이라면 작은 편에 속하겠지만, 소설책에서도 12×20 cm가 특별히 작은 판형일까?

그건 모르겠지만, 카를 마르텐스의 알록달록한 리프린트(#237)를 '작은 책'이라고 부를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17×24 cm인 책을 두고 '큰 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책, 그냥 책이다. 마르텐스가 좋아하는 판형 같기도 하다. 1990년 건축 학술지 오아서의 디자인을 맡은 그가 판형을 A4에서 현재 크기인 17×24 cm로 바꾼 일은 유명하다. 그런데 그것이 유럽에서는 꽤 널리 쓰이는 판형인 모양이다. B5 규격(17.6×25 cm)에 가깝고, 따라서 경제적인 판형이기도 하다. 근사한 도판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미술 출판사가 대체로 선호하는 크기보다는 작고 다루기에 편한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익명적이고 합리적이며 정직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한다.

로허르 빌럼스는 마르텐스와 함께 개정 초기(1993-1994) 오아서를 디자인한 바 있다.

The "size" of a book sounds like a straightforward idea, but it actually isn't. When you say a book measures 17 × 24 cm, do you mean the size of the page or the binding? In fact, how can any book measure "17 × 24 cm"? Is it some kind of two-dimensional image without depth? Then again, how precise can you really be about the thickness, when it can vary slightly copy to copy, season to season? After all, paper absorbs (and releases) moisture.

In this world of approximation, what would be at the top and bottom of the physical scale of Roma books? (Let's not debate here if a bar of soap can be a book. It may be, but without pages or binding, it just doesn't give me comparable measurement.) Iwar von Lücken: Selected Poems (With Annotations) by Dieter Roelstraete (#192) measures 10.7 × 17.7 cm, and it's the smallest book ever made by Roma. It beats (by a narrow margin) Experimental Jetset's Automatically Arranged Alphabets (#249) and Statement and Counter-Statement (#250), as well as A Play by Uta Eisenreich and James Langdon (#267), each of which measures 11 × 18 cm. These are closely followed by three books of 12 × 17 cm: Luuk Wilmering, The man who never experienced anything (#144); various artists, Nederland op de Biënnale van Venetië (#163); and Mark Manders, Acolyte Frena (#229). The website describes the last as a "small book," and I think none of us will object to that. What about, then, Maud Van De Veire's novel, Splinters zijn stukken van bomen (#43), which measures 12 × 20 cm, and is only slightly larger than Acolyte Frena? Is it a small book, too? I would readily say "yes" if it was an art book, but is 12 × 20 cm particularly small for a novel?

그리고 17×24cm는 로마 출간 도서에서도 흔한 판형에 속한다. 정확히 15편이 그 판형으로 나왔고, 범위를 (16.5×23cm에서 18×25cm 사이로) 넓히면 사례는 44편으로 늘어난다. 전체 간행물의 16%에 해당하는 양이다. 다른 표준 판형도 살펴보자. A5 범위(14×20cm에서 16×22cm 사이)에 속하는 책은 27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비중이 큰 판형은 A4 변형판(20×27cm에서 22×29cm)이다. 총 67편이 이 범위에 속하는데, 이는 출간 도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중 다수는 근사한 도판을 자랑한다.

로마 출간 도서 중에서 가장 큰 책은 뭘까? 포스터와 '신문'을 제외하면, 33.5×26.5cm로 나온 안 캬페르나르스의 픽처레스크(#173)가 그 책인 듯하다. 그런데 이 책과 더불어 역시 캬페르나스가 낸 #141 스포메니크(33.5×24.5cm로, 이 또한 꽤 큰 편이다)는 로마 웹사이트의 도서 소개에서 드물게, 어쩌면 유일하게 실제 사진이 아니라 컴퓨터 렌더링 이미지를 쓴 탓에 마치 전자책 페이지처럼 괴기하게 매끈하고 균질한 그림자 처리 등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카메라로 찍기에는 책이 너무 컸던 탓일까?

협력 기관

로마 도서 271편 가운데 166편은 공동 간행물이다. 네덜란드 미술관이나 학교, 미술 센터와 함께 만든 63편을 포함, 148편은 유럽의 문화 기관과 협력한 작품이다. 유럽 외 기관과 공동 출간한 책은 북아메리카 7편, 라틴아메리카 6편, 일본 2편(도쿄 오페라시티미술관과 협력한 카를 마르크 만더르스·마레이어 랑엘라르의 #16 도쿄 신문, DNP 문화진흥재단과 협력한 카를

I would certainly not call Karel Martens's colorful Reprint (#237) a "small book," which comes in the format of 17×24 cm. But I would oppose to describing it as "big," either. It's neither small nor big — it's just a book. And the format is, apparently, Martens's favorite: when he took over the design of the architectural journal OASE in 1990, he famously changed the size from A4 to its current dimensions, 17×24 cm. It seems to be a common book format in Europe, close to the standard B5 (17.6×25 cm), and therefore economical. It's certainly more comfortable than the larger sizes favored by art publishers who want to show off marvelous reproductions. And it also carries the air of rationality, sobriety, and seriousness, as well as anonymity.

Roger Willems worked with Martens on several issues of OASE (1993–1994). And 17×24 cm is also one of the common sizes adopted by Roma books: fifteen titles have been made in the format, and if you include those in a similar range (between 16.5×23 cm and 18×25 cm), then the number increases to forty-four, which is about 16 percent of the entire catalogue. Let's also look at other standard formats. Twenty-seven books fall into an A5 range (between 14×20 cm and 16×22 cm), but the largest group seems to be A4 variations (between 20×27 cm and 22×29 cm); sixty-seven titles belong to this category, accounting for a quarter of the catalogue. And many of them do contain great reproductions.

What is the largest book ever published by Roma, then? Apart from posters and "newspapers," Jan Kempenaers's photo book, Picturesque (#173), measuring 33.5×26.5 cm, seems to be the one. This and another of

마르텐스의 #199 폴 컬러), 남아프리카 1편(요하네스버그 자카나 미디어와 협력한 마를렌 뒤마의 #106 친밀한 관계), 한국계 미국 기관 1편(뉴욕 두산갤러리와 협력한 김영나의 #251 세트)이 있다.

가장 빈번히 협력한 기관은 총 13편을 공동 출간한 네덜란드 미델뷔르흐의 현대미술 센터 플레이스할이다. 그다음으로는 리스본의 카이사 은행 문화재단 쿨투르제스트가 있다. 11편을 공동 출간했고, 관련 작가로는 마르크 만더르스, 마르크 나흐참, 케이스 하우트초바르트, 마레이어 랑엘라르, 로허르 빌럼스, 바티아 슈터르, 바르트 로데베이크스 등이 있다. 쿨투르제스트는 2006년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전시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아무 정보도 찾지 못한 협력 기관이 하나 있다. 옥사나 파사이코의 전 세상 - 나 없음 = 전 세상(#96)에 협력했다고 명시된 '노바디 서'(Nobody sir)다. 문제의 간행물은 엽서 세 장으로 구성되는데, 웹사이트에는 그 작품을 제시하는 세 가지 방식이 설명돼 있다. "1. 앞면과 뒷면을 나란히 유리장에 놓되, 사이에 12mm 간격을 둔다. 2. 그냥 나누어 준다. 3. 앞면과 뒷면을 나란히 벽에 붙이되, 사이에 12mm 간격을 둔다." '노바디 서'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에도 없고 엽서 자체에도 없다.

출간 연도

첫 로마 도서는 1998년에 나왔다. 마르크 나흐참의 (몇몇)이다. 그해 로마가 펴낸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다. 2015년 로마는 27편을 펴내며 가장 왕성한 한 해를 보냈다. 그사이에는

Kempenaers's books, Spomenik (#141) — at 33.5 × 24.5 cm, it's quite large, too — are also among the very rare, if not the only, examples on Roma website that are represented not by actual photographs but by computer-generated images, with all the weirdly uniform shadows and surreal smoothness typical of e-books' simulated pages. Were they too large for cameras?

IN COLLABORATION WITH

Among the 271 Roma titles, 166 were co-published. Of them, 148 were made in collaboration with European institutions, including sixty-three books related to Dutch museums, schools, or art centers. Outside Europe, seven books have been made with North American institutions, six with Latin American, two with Japanese (#16, Mark Manders and Marije Langelaar, Tokyo Newspaper, Tokyo Opera City Art Gallery; and #199, Karel Martens, Full Color, DNP Foundation for Cultural Promotion); one with a South African (#106, Marlene Dumas, Intimate Relations, Jacana Media, Johannesburg); and one with a Korean-American (#251, Na Kim, SET, DOOSAN Gallery, New York).

The most frequent collaborator seems to have been the Vleeshal, Center for Contemporary Art in Middelburg, the Netherlands, with which Roma published thirteen books. It's narrowly followed by Fundação Caixa Geral de Depósitos — Culturgest, Lisbon. Eleven Roma books have been co-published with the bank's cultural foundation, including ones by Mark Manders, Marc

188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로마 신간이 나왔다.

- 1999년 7편 출간. 최소한 한 군데(S.M.A.K. 웹사이트)에는 1999년이 로마 퍼블리케이션스가 설립된 해로 소개돼 있다.
- 2000년 8편 출간.
- 2001년 10편 출간.
- 2002년 12편 출간. 네덜란드 오테를로 크뤼러뮐러 미술관에서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전시회 개최. 그와 관련해 오픈 데이스(#38) 출간.
- 2003년 6편 출간.
- 2004년 13편 출간.
- 2005년 17편 출간. 벨기에 헨트 S.M.A.K.에서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전시회 개최. 그와 관련해 두 번째 오픈 데이스(#70) 출간.
- 2006년 18편 출간. 포르투갈 리스본 쿨투르제스트에서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전시회 개최. 그와 관련해 책이 친구를 만든다(#90) 출간.
- 2007년 10편 출간. 로마 #100 — 바티아 슈터르, 평행 백과사전 출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더 내로스에서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전시회 개최.
- 2008년 16편 출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UTS 갤러리에서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전시회 개최.
- 2009년 9편 출간.
- 2010년 20편 출간.

Nagtzaam, Kees Goudzwaard, Marije Langelaar, Roger Willems, Batia Suter, and Bart Lodewijks. Culturgest is also where Roma had its own exhibition in 2006.

There is one co-publisher that I have not been able to find anything about. It's Nobody sir, credited for Oksana Pasaiko, The Whole World – Without Me = The Whole World (#96). The work is a set of three postcards, and according to Roma's description, they are presented in three different ways: "1. In vitrines or on pedestals behind glass, front and back of card presented next to each other with a distance of 12 mm; 2. As give away cards; 3. On the wall with front and back of the card presented next to each other with a distance of 12 mm."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Nobody sir, neither on the website nor on the postcards themselves.

YEAR

The first Roma title came in 1998, and that was the only work released by the publisher that year: Marc Nagtzaam, (SOME). In 2015, Roma issued twenty-seven books, marking its most prolific year to date. In between, not a single year passed without a new Roma publication.

In 1999, seven titles were released. At least one source (S.M.A.K. website) cites this year as when Roma Publications was founded.

189

2011년 25편 출간.

2012년 18편 출간. 독일 브레멘 베저부르크 현대미술관의 아티스트 도서 연구 센터에서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전시회 개최.

2013년 23편 출간. 로마 #200 — 마르크 만더르스, 불완전한 문장의 방 출간.

2014년 19편 출간. 이탈리아 로마 폰다치오네 줄리아니에서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전시회 개최. 그와 관련해 로마 폰다치오네 줄리아니에서의 로마 퍼블리케이션스(#241) 출간.

2016년 6월 현재까지 11편 출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전시회 개최. 그와 관련해 로마 #272 출간 예정. 이 글은 그 책을 위해 쓰였다.

여러 작가가 공저한 로마 20 A-Z(#20)와 마르크 만더르스·마레이어 랑엘라르의 세탁물을 기다리며(#23)는 출간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다. 전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후자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출간 준비 중이다.